

부부의 자존감 수준과 부부 성만족도의 관계

김 영 기 한 성 열 한 민

단국대학교

고려대학교

가족구조가 부부중심으로 변화함으로써 부부의 성만족도는 결혼생활 및 삶의 만족을 예언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성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남편이나 부인 어느 한편만의 입장에서 수행되었기 때문에 성생활이 부부간의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을 간과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간의 성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부의 자기존중감 수준을 부부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짚지어 부부 성만족도와와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서울과 경기, 강원 일부지역(원주)에 거주하는 부부 1500명(750쌍)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 중에서 회수되지 않은 760부,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공백이 많은 설문 52부를 제외한 총 812부를 제외한 688부(344쌍)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그 결과, 부부의 자기존중감 수준은 부부의 성만족도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나타내었으며, 특히 남편의 자기존중감 수준보다는 부인의 자기존중감 수준이 부부의 성만족도와 보다 정적인 상관을 갖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주제어 : 성만족도, 자기존중감, 결혼만족, 상호작용

† 교신저자 : 김영기, 단국대학교 교육학과,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135-8 동문빌딩 2층
E-mail : kmento@chol.com

현대 사회로 들어오면서 가족형태의 변화 핵심은 확대가족에서 부부 중심의 핵가족 형태로 변화해왔는데 이러한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가족형태에서는 수직적, 이차적이던 부부관계가 핵가족에서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를 중시하는 평등적, 동반자적 부부관계로 변화하였다. 그에 따라 현대의 가정은 한 가족 안에서 부부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부부 상호간의 애정과 신뢰, 그리고 이러한 애정을 표현하고 촉구하는 수단인 성생활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더욱 중시되고 있다(김임영, 2002). 또한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결혼생활의 안정성(stability)보다는 부부간의 만족도(satisfaction)를 추구하는 쪽으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권정혜, 채규만, 1998).

이근후(1996)의 조사연구에 따르면 부부간 성생활이 결혼생활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였다. ‘성생활이 결혼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 수준’이라고 본 사람이 45.2%를 차지했고, ‘90% 이상’도 38.7%에 이르렀다. 전체적으로 10명중 8명이 결혼에서 성생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고 응답한 것이다. 또한 이윤수(1998)의 조사연구에서도 부부간 성생활이 결혼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절반이상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생활이 결혼생활의 질과 부부의 적응을 결정짓는 요소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 밖에도 부부의 성은 애정을 표현하고 친밀감을 도모하는 관계적 기능, 성생활을 통하여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거나 문제점을 진단하는 바로미터(barometer)의 기능, 그리고 부부의 결속과 유대감을 공고히 하는 상징적 기능을 한다(Means, 2000). 그러므로 성생활의 만족,

불만족 여부는 당사자 개인의 삶의 모든 부분에 연관되고 삶의 질에 영향을 주며, 부부 두 사람의 관계 전체에 영향을 미쳐 가정 내의 안정이나 평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전송희, 1988).

성만족도와 결혼만족

성 만족이란 부부간의 성적 욕구를 표현하는 상호관계 상황에서 주관적으로 만족하는 정도이다(고정애, 2004). 인간에게 성은 애정, 공격성과 함께 인간의 생존과 종족 보존을 위한 필수불가결의 행동적 요소일 뿐만 아니라, 인간 행동의 여러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홍강의, 2000). 흔히 성생활은 개인의 행복을 측정하는 지표들 중의 하나라고 말한다. 성생활은 육체적 이완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을 증진시키고 감정의 교환, 따뜻한 느낌을 제공한다. 만족한 성생활과 행복한 결혼생활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이홍식, 1987; 이영실, 1989). 성생활의 결핍이나 불만족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결과가 욕구불만이나 우울증, 불안, 불면증, 자살 등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Stack & Gundlach, 1992).

또한 성은 모든 사람의 자연스러운 자기표현이자 인간생활에 있어 필수적인 활력소이며, 건강한 성은 행복한 부부관계와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준다(홍성목, 1999). 인간이 성생활을 영위하는 가장 보편적인 맥락은 결혼으로 맺어진 부부 관계이다. 부부의 친밀감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조화로운 성생활 만족은 결혼생활을 안정되고 풍요롭게 한다. 기혼자의 성 만족도는 결혼만족도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결혼을 통해서 인간은 사랑을 실현하고, 경

제적, 정서적 안정을 얻으며, 배우자와 자녀를 얻고, 성적 만족과 보호받고자 하는 욕구가 충족된다(장순복, 1989). 이처럼 인간이 결혼을 하고자 하는 목적 중에는 성적 만족을 위한 부분이 있으며, 부부간 성 생활은 개인의 행복을 측정하는 지표 중의 하나이다(윤가현, 1998). 왜냐하면 개인의 욕구불만이나 우울증, 불안, 불면증, 자살, 학업 성취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성 생활의 결핍이나 불만족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Stack & Gundlach, 1992).

Marokoff와 Gilliland(1997)는 기혼자들에게 성 생활의 만족이 결혼생활의 만족과 직결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Donnelly(1993)는 부부간의 성 생활 부재는 별거나 이혼의 가능성과 관계가 깊다고 하면서 부부관계에서 성 만족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부부간의 상호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는 커플들의 특징은 성생활이 활발하고 만족되며, 이와 반대로 부부간 성생활의 불만족이나 부재는 별거나 이혼 가능성을 말해주는 지표가 된다(Donnelly, 1993). 결혼 관계에서 성욕구의 표현은 부부결속을 강화시키며, 부부간의 성행위는 상호간의 존경과 사랑의 심도를 더해 주며 만족스러운 성생활은 심리적 안정과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특히 부부중심의 핵가족에서는 부부사이의 성적만족이 궁극적으로 가장 높은 애정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이근후 외, 1999). 결혼관계에서 성생활은 두 사람간의 감정적, 인격적 표현이며, 서로간의 사랑과 존경, 관심과 인간성 및 즐거움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를 통하여 부부들은 일체감, 상호 감사, 긴장 완화, 사랑의 표현, 합의, 기분전환 등이 이루어지고, 상호작용하게 되며, 계속 성장 발전되

어 가는 특성이 있다(문혜숙, 1994).

따라서 성 만족도와 결혼만족도는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안정성 보다는 만족도로서의 부부간 행복한 결혼생활을 원하는 현대사회에서 성 만족도는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하겠다.

연구의 방향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서는 가족 안에서 부부의 역할이 증대되어 가는 것은 현대 사회의 피할 수 없는 현상이고, 그 부부 관계에 있어서는 안정성보다 만족도를 추구하는 것도 또한 현대 사회의 특징이다. 그리고 그 만족도 중에서도 부부의 성 만족도는 갈수록 부부의 결혼관계에서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이렇게 부부의 결혼생활에서 성생활의 만족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크에도 부부의 성만족도에 대한 국내 연구는 미비한 편이다. 지금까지 국내의 선행연구들에서는 부부간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내용들이 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부부간의 결혼만족도 중에서도 핵심요소라 할 수 있는 부부의 성만족도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그에 대한 연구가 의외로 부족하며 국내 자료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국내에서 발표된 성 만족도에 관한 연구를 대략 살펴보면, “기혼여성의 결혼만족: 관계 및 자율지향성과 성 만족을 중심으로”(홍숙선, 2001), “기혼여성의 성 만족 및 일반적 의사소통과 성관련 의사소통이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고정애, 2004), “기혼여성의 성행동 및 성 만족도와 결혼 만족도”(김진영, 2005) 등과 같이 주로 부부 중, 부인 일방의 관점에서

살펴본 성 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거나, “임부의 성생활에 대한 조사 연구”(김윤미, 1996), “임신부인의 성생활 만족 요인에 관한 연구”(양희란, 1993), “임신부부의 성태도와 성만족도”(방영희, 2001), “결혼초기 부부관계에서 남편과 아내가 지각하는 사랑과 성”(서선영, 2001), “남편과 아내의 가치관이 신혼기 부부의 성에 미치는 영향”(김임영, 2002)등과 같이 결혼생활의 특정주기에 대한 성 만족도가 연구되어 왔다. 그런가하면 “자궁절제술 부인의 성생활 만족에 관한 요인 분석”(장순복, 1989), “정관수술 수용자 군과 비수용자군의 성기능 및 성만족도 비교”(김동석, 1988), “자궁경부암 환자의 방사선 치료 후 성생활 변화”(김용옥, 1991), “혈액투석 환자와 신장 이식 환자의 삶의 질과 성생활 만족도”(양혜주, 1997) 등과 같이 수술 등의 치료 이후에 나타나는 부부 성만족도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진행한 연구들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부부의 의사소통 유형과 성 지식 수준의 성 만족도와 의 관계 연구”(김요완, 2000)와 같이 부부를 한 대상으로 하여 상호간의 성 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하지만 부부의 성 만족은 일방의 관점에서 다를 경우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부부관계의 역동을 살펴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또한 특정 주기의 부부나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부부에게 있어서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부부 관계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김효현, 1996; 문혜숙, 1993). 더욱이 현대의 부부 관계가 결혼생활의 안정성(stability)보다는 부부간의 만족도(satisfaction)를 추구하는 쪽으로 변화해 가는 추세에 있어서는 부부의 성만족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하겠다. 그럼에도 지금까지는 상담학적, 심리학적

입장에서 실제 부부를 대상으로 한 부부간 성 만족도에 관한 연구가 미비하였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본 연구는 부부를 대상으로 한 부부간의 성만족도에 관련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현대사회에서 갈수록 중요시되고 있는 부부간의 만족도, 그중에서도 성만족도를 높이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의 답을 찾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실제 결혼관계에 있는 부부들의 쌍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기존 연구들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보완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결혼만족도이든, 성만족도이든 부부관계가 역동적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부부 모두를 연구대상으로 수행한 것이 많지 않고, 대부분의 연구가 부인의 지각을 바탕으로 부부관계를 연구하여 왔다. 그러나 부부의 결혼생활은 남편과 아내라는 두 개인이 함께 이루어가는 과정이므로 부부를 한 단위로 보고 두 배우자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즉, 부부간의 문제는 한 쪽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부의 상호작용을 함께 연구함으로써 부부간의 상호 역동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부간의 성만족도와 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부의 자기존중감의 수준을 부부간의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자기존중감과 결혼만족

많은 이론가들은 인간의 행동 및 적응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자기개념(Self Concept), 또는 자기존중감(self-esteem)이라고 믿고 있다(Frankl, 1973; Maslow, 1954; Rosenberg,

1965). 즉 인간의 효율감, 성공감, 행복감을 획득하려면 제반 환경에 잘 적응하고 적응에 있어 가장 필요한 관건은 긍정적 자기개념이라 생각된다(김임영, 2002).

자기존중감은 개인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평가이며, 개인이 자신에 대해 갖는 태도 속에 나타나는 자신에 대한 가치의 판단이다(Coopersmith, 1967). 자기 자신을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것을 나타내며, 개인이 자기 자신을 능력 있고 중요하며 성공적이고, 가치 있다고 믿는 정도를 말한다.

Harre(1983)는 자기존중감을 인간의 동인으로 간주했다(송인섭, 1989 재인용). 이러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인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어떤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Coopersmith는(1967) 자기존중감은 여러 경험을 통해서 다양하게 변화될 수 있으며, 성, 연령, 및 다른 조건에 의해서도 변화될 수 있는 특성으로 개인의 환경에서 중요한 타인들 즉 부모와 교사, 배우자, 친구들의 자신에 대한 태도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

자기존중감과 결혼만족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는 Culp와 Beach(1993)에 의해 실시되었는데, 이들은 결혼생활에 있어서 자기존중감의 역할이 남성과 여성에게 어떻게 다른가를 규명해 내었다. 남성들과 여성들은 그들의 자기(self)를 정의 내리고 개념화하는데 있어서 비중을 두고 사용하는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들의 자기존중감을 형성하는 기반도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들의 경우에는 타인들과의 연결, 특히 중요한 타인과의 애착(attachment)을 중시하므로, 남들과 더 잘 어울리고 남들과 조화롭게 지낼수록 자기존중감이

높은 반면, 남성들의 경우에는 타인들과 구별되어서 자기가 개별화되어 존재하고, 독립적일수록 자기존중감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어린 시절부터 어른이 되어 클 때까지 사회적 상호작용과 대인관계 경험의 패턴이 남성과 여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남성과 여성의 자기존중감 수준은 다르지 않더라도, 자기존중감의 기반이 되는 배경들은 다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여성의 경우, 결혼생활을 행복하게 누리면 이에 따라 자기존중감이 상승하며, 반면 결혼생활이 불행하면 자기존중감도 따라서 떨어진다. 그러나 남성들의 경우에는 다르다. 결혼 생활에 따라 자기존중감이 결정되는 여성들과 달리 이들의 자기존중감의 고저에 따라서 결혼생활의 어려움을 증대시키기도 하고 감소시키기도 하는 것이다. 이처럼 자기존중감의 기본 바탕이 남자와 여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또 남성의 자기존중감에는 타인으로부터의 분리가 중시되고 여성들에게는 타인과의 융합이 더욱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배우자와의 관계와 자기존중감의 상호작용이 성별에 따라 다르리라 예상되며, 외국의 경우와 우리나라의 경우도 분명히 다를 것이라 생각된다.

결혼 만족도와 관련하여 진행된 연구에서 보면 자기존중감이 높을수록 활력적 결혼생활을 유지한다고 나타나고 있다(이은주, 1993). 또한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심리적 요인에 관한 조사연구에서 자기존중감이 결혼 만족도에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김임영, 1994). 이는 부부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특성인 자기존중감이 결혼생활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처럼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인 자기 존중감은 개인의 삶과 부부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권정혜·노은여, 1997). 부부간의 성생활은 신체건강 뿐 아니라 정신건강 및 인격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총체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자기존중감과 부부간의 성생활과는 상당한 관련이 있다(김임영, 2002; 박성호, 2001; 송시내, 1999). 인본주의적 관점이나 실존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대인관계와 함께 부부간의 성생활에서 만족하는 것은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Frankl, 1973; Maslow, 1954; Peterson, Baucom, Elliot & Farr, 1989).

부부간의 성생활을 통하여 상호 서로를 알게 되고 이해하며 수용할 뿐만 아니라 상호 수용된다는 느낌을 갖게 되어 자아가 존중되고 자부심이 향상되는데 이는 부부간의 성적인 차이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부부에게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성숙의 결과인 것이다(Ellis, 1991). Cole(1975)은 만족스러운 성생활은 자아성취 및 생산력을 향상시키고 또한 신체적 문제들을 완화시킴으로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Cox(1975)는 건강한 성을 제안하면서 부부간의 성적인 표현은 자신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며 성생활에서 긍정적 자기존중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지금까지 자기존중감과 성생활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건강 문제와 관련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Hogan(1985)에 따르면 질병이 발생하거나 어떤 질병에 의해 신체가 변하게 되면 개인은 신체적, 심리적 영향을 받아 자기존중감이 떨어지고 배우자와의 성생활에 부적응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김효신(1999)은 중도장애인의 결혼만족도 연구에서

자기존중감은 성생활 만족도와 상관관계를 가지며 긍정적인 자기존중감을 가질수록 부부간의 성생활에 만족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 자기존중감과 성만족간의 관계를 찾아보는 것은 힘들었다. 따라서 정상적인 부부 관계에서의 자기존중감과 성만족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기존중감에 있어서 부부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부인의 자기존중감보다 남편의 자기존중감이 더 높으며 긍정적인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박성호, 2001; 송시내, 1999). 이은주(1993)는 남편과 아내 모두 긍정적인 자기존중감을 가질수록 활력적인 결혼 생활을 한다고 보고하면서 부부 관계에서 자기존중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부부의 자기존중감이 높을수록 부부 적응이 잘되며 남편의 자기존중감이 아내의 자기존중감보다 높을수록 부부 적응이 잘 이루어진다고 보고하였다(권정혜, 1997). Glasser(1966)의 연구에서도 배우자의 자기존중감과 그 사람의 배우자가 자신에 대한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는 믿음과 부부의 서로에 대한 평가와 인식을 바탕으로 한 조화가 행복한 결혼생활에 기여한다고 하였다(조성욱·신효식, 1987에서 재인용). 성생활 만족과 부부 적응과의 관련을 살펴보면, 부부의 성만족은 다른 결혼 생활에 영향을 미쳐 결혼만족을 가져오고, 결혼 생활이 만족하면 성적인 만족을 가져온다고 하였다(Adams, 1980). 따라서 부부가 자기존중감이 높을 때 건강한 부부 관계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성만족도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이 부부의 자기존중감과 성만족도는 상당한 관련이 있으나 실증적 연구들은 주로 성생활의 건강의 측면에 대한 연구가 대다수였고 정상적인 부부 관계에서의 자기존중감과 성

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부의 자기존중감과 성만족도와의 관계, 그리고 부부의 자기존중감이 성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한다.

방 법

조사 대상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 강원 일부지역(원주)에 거주하는 부부조사 대상자 1500명(750쌍)의 설문 중에서 회수되지 않은 760부,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공백이 많은 설문 52부를 제외한 총 812부를 제외한 688부(344쌍)의 설문을 가지고 분석하였다.

자료수집은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알고 있는 여러 학교의 교사, 교회의 목회자, 각 지역 문화센터의 담당자 등 다수의 분들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설문지를 부탁하였고, 연구자 본인이 직접 찾아가 부탁하여 받은 설문지도 다수이다. 대개의 경우, 부인 또는 남편 한쪽 대상에게 부탁하여 본인과 배우자의 설문지를 돌려받았고, 일부는 연구자가 부부 각자에게 부탁한 경우도 있었다. 설문지는 남편과 부인 각각 개별적인 봉투에 넣어 제공하였으며 부부가 서로 의논하거나 보지 않도록 하였고 설문지를 돌려받을 때도 부부 개별적인 봉투에 봉합한 상태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조사 기간은 2006년 10월 16일부터 2007년 1월 15일까지 93일 동안 실시되었고 회수율은 45.8%이었다. 회수율이 높지 않은 이유는 연구자가 직접 대상을 만나 부탁하여 설문지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자의 부탁을 받은 사람에게 의해 배부되었기에 설문작성 동기부여

가 떨어졌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또한 부부의 성만족도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이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서는 편안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 같고, 부부에게 서로 다른 봉투로 제공했지만 한 대상을 통해 수거하였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혹시라도 노출될 것에 대한 염려로 포기하였지 않았나 하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부부관계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거나 부부의 성생활이 원만치 못한 가정들에서는 설문지 자체가 부담스러웠기에 아예 작성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 추측된다.

측정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자기존중감, 성만족도 검사이며, 각 검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기존중감 척도(self-esteem)

자기존중감의 측정을 위해서 Coopersmith(1967)가 제작한 Self-Esteem Inventory를 강중구(1986)가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25개 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척도는 자기비하, 타인과의 관계, 지도력과 인기, 자기주장과 불안의 4가지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는 Likert식 4점 척도로 측정되며 자기존중감과 관련된 각각의 문항들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는가를 전혀 그렇지 않다(4점)에서부터 아주 그렇다(1점)까지 평정하게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존중감이 높은 것이다.

강중구의(1986) 연구에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6이었으며 박성호(2001)의 연구에서는 남편은 Cronbach α = .85, 아내는 Cronbach α = .84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남편은

Cronbach $\alpha = .84$, 아내는 Cronbach $\alpha = .85$ 였다.

성만족도 척도

성 만족 정도 측정을 위해 Derogatis 성 기능 척도(Derogatis Sexual Function Inventory, 이하 DSFI)를 장순복(1989, 1990)의 연구에서 우리말로 번역한 것을 부분적으로 사용하였다. DSFI의 제 10부 성 만족에 관한 문항 11개를 장순복(1989, 1990), 이민식(1988), 강희선, 김숙남, 장순복(1988) 등의 연구에서 우리말로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DSFI 원본에서는 Yes 혹은 NO의 2점 척도의 설문이었지만 김요완(2000)이 연구의 세밀성을 기하기 위해 Likert type의 5점 척도를 사용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마지막 11번째의 질문은 자신의 성 만족을 자가 보고식으로 기입하는 문제로서 최악의 상태(0점)에서부터 최상의 상태(8점)까지 9점 척도의 질문을 사용한 것을 이용하였다.

김요완(2000)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84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남편은 Cronbach $\alpha = .79$, 아내는 Cronbach $\alpha = .81$ 이었다.

결 과

조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들은 다음과 같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성만족도의 차이

성별에 따른 성만족도의 차이

부부의 성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paired-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만족도는 부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한 쌍의 부부가 지각하는 성만족도는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생각된다.

연령에 따른 성만족도의 차이

남성과 여성의 연령에 따른 성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단일문항으로 측정된 여성의 성만족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3에 따르면, 남성들은 30대 이하와 50대 이상 사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여성들은 30대 이하와 40대의 사이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 여 모두에서 30대 이하의 성만족도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결혼형태에 따른 성만족도의 차이

결혼형태에 따른 성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단일문항으로 측정된 남성의 성만족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4에 따르면, 연애와 중매의 중간형태의 결혼을 한 남성들의 성만족도가 연애나 중매만으로 결혼을 한 이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한편, 연령, 학력, 종교, 결혼기간, 수입, 직업, 자녀수 등의 변인에 대한 분석에서 성만족도의 수준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존중감과 성 만족도와의 상관관계

그 다음으로, 남편과 부인에 따른 자기존중

표 1. 조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남 (N=344)		여 (N=344)		
	사례수	백분율(%)	사례수	백분율(%)	
연령대	2,30대	119	34.6	164	47.7
	40대	165	48.0	143	41.6
	5,60대	60	17.4	37	10.8
학력	고졸이하	79	23.0	113	32.8
	대졸	187	54.4	196	57.0
	대졸이상	78	22.7	35	10.2
직업	교사	35	10.2	83	24.1
	회사원	124	36.0	29	8.4
	주부	0	0.0	161	46.8
	자영업	48	14.0	13	3.8
	공무원	32	9.3	15	4.4
	목회자	28	8.1	2	0.6
	기술직	20	5.8	0	0.0
	서비스직	9	2.6	10	2.9
	기타	31	9.0	21	6.1
	전문직	17	4.9	10	2.9
종교		사례수	백분율(%)		
	기독교	186	54.1		
	천주교	22	6.4		
	불교	27	7.8		
	기타 없음	3 106	0.9 30.8		
결혼기간	5년 이하	60	17.4		
	6년-10년	68	19.8		
	11년-20년	156	45.3		
	20년 이상	60	17.4		
결혼형태	연애	217	63.5		
	중매	75	21.9		
	반반	50	14.6		
교제기간	1년 이하	162	47.1		
	2년 이하	68	19.8		
	3년 이하	55	16.0		
	3년 이상	59	17.2		
자녀수	0명	28	8.1		
	1명	64	18.5		
	2명	207	60.2		
	3명이상	45	13.1		
수입	200미만	43	12.5		
	350미만	105	30.5		
	350이상	196	57.0		

표 2. 부부 성만족도의 차이분석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
성만족도	남	344	3.36	.48	343	.995
	여		3.34	.53		
성만족도 (단일문항)	남	344	5.91	1.59	343	.858
	여		5.83	1.71		

표 3. 연령대에 따른 성만족도의 차이분석

구 분		30대이하	40대	50대이상	평균	표준편차	F
남자	성만족도	n=119	n=165	n=60	5.83	1.71	3.981*
	(단일문항)	6.05a (1.62)	5.86ab (1.61)	5.30b (2.02)			
여자	성만족도	n=164	n=143	n=37	5.83	1.71	4.559*
	(단일문항)	6.12a (1.52)	5.58b (1.81)	5.51ab (1.89)			

* p<.05, a, b는 scheffe 사후검증 결과.

표 4. 결혼형태에 따른 성만족도의 차이분석

구 분	연애	중매	반반	평균	표준편차	F
사례수	217	75	50			
남성 성만족도 (단일문항)	5.84a (1.57)	5.69a (1.68)	6.52b (1.46)	5.91	1.60	4.654*

* p<.05, a, b는 scheffe 사후검증 결과.

감과 성만족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에 따르면, 남편의 성만족도와 남편의 자존감, 부인의 성만족도와 부인의 자존감은 .3 ~ .4 정도의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남편 성만족도와 부인의 자존감, 부인 성만족도와 남편의 자존감은 .1~.2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

은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표 5. 자기존중감과 성만족도의 관계

	남편 성만족도	부인 성만족도
남편 자존감	.378***	.179***
부인 자존감	.245***	.385***

*** p<.001

표 6. 부부의 자기존중감 수준에 따른 성만족도의 차이분석

구 분	남저여저	남저여고	남고여저	남고여고	평균 (표준편차)	F
사례수	96	77	73	98		
남편성만족도	3.19a (.40)	3.32a (.43)	3.35a (.47)	3.57b (.52)	3.36 (.48)	11.225***
부여성만족도	3.14a (.47)	3.45b (.51)	3.22a (.49)	3.55b (.53)	3.34 (.53)	13.509***

*** p<.001, a, b는 scheffe 사후검증 결과.

부부의 자기존중감의 차이와 성 만족도의 관계

논 의

부부의 자기존중감 차이에 따른 성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부부의 자기존중감 고저에 따른 집단을 구분하였다. 즉, 남편과 부인의 자기존중감이 모두 낮은 경우, 남편의 자기존중감은 낮고 부인의 자기존중감은 높은 경우, 남편의 자기존중감은 높고 부인의 자기존중감이 낮은 경우, 남편과 부인의 자기존중감이 모두 높은 경우의 4집단에 따른 성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표 6에 따르면, 남편의 성만족도는 남편과 부인의 자기존중감이 모두 높은 집단이 성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부인의 성만족도 역시 부인의 자기존중감이 높은 집단이 그 외의 집단들에 비해 높았다. 즉, 자기존중감과 성만족도와의 관계에서는 남편보다는 부인의 자기존중감이 높은 경우가 부부의 성 만족도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는 현대가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현대 가족심리학자들은 한결같이 가정의 중심이 부부가 되어야 하며, 부부가 가정의 핵심에 있을 때 그 가정이 건강하게 기능하는 가정이 된다고 입을 모은다. 우리나라의 과거 세대에서는 가정의 중심에 부부가 있지 못했고 변방에 머물고 있었다. 그러나 현대로 넘어오면서 우리나라의 가정 또한 많은 변화를 겪어왔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부부 중심의 가정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과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안정정보보다는 만족도를 추구하는 쪽으로 관심의 축이 옮겨져 왔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현대 가정의 추세는 이전까지는 덮어두거나 감추려고 했던 부부간의 성 만족에 대한 표현도 달라지게 하였다.

즉 이전과는 달리 부부간의 결혼만족도를 측정하고 좌우하는 요소로 성적 만족도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더 이상 부부간의 성 만족도는 부부만의 은밀한 비밀에 속한 것이 아니고 부부의 행복과 결혼 만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반면 부부의 성 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그리 활발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중요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으나 부부의 결혼 만족도를 좌우할 요소 중 하나인 성 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고민을 안고 해답을 구하는 가정에 만족할만한 답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성 만족도를 방해하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심층적인 접근도 용이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편과 부인을 각자 개별이 아닌 부부를 한 단위로 묶어 연구한 것을 통해 부부간의 성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부부는 역동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부부의 문제를 다룰 때는 남편과 부인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는 것보다 분명하지 않을 수 있다. 부부 상호간에 일어나는 역동적인 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길은 부부를 함께 짝으로 하여 연구하고 알아보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았기에 본 연구에서는 부부를 한 단위로 묶어 연구하였다. 부부의 성만족도를 다루면서 본 연구에서는 부부의 자기존중감과 부부 상호간의 성 만족도와와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연구에 따른 주요한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편과 부인에 따른 자기존중감과 성 만족도의 관계에서는 부부 모두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박영화, 고재홍(2005)의 연구 등에서 자기존중감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정적상관을 보인다는 결과, 박성호(2001)의 자기존중감과 결혼만족도간에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부부의 자기존중감이 결혼만족도는 물론 성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한편, 남편과 부인의 자기존중감은 각각 남편과 부인의 성만족도와 더 높은 상관을 보였으나, 남편의 자기존중감과 부인의 성만족도

($r=.179, p<.001$), 그리고 부인의 자기존중감과 남편의 성만족도($r=.245, p<.001$)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을 보였다. 즉 부인의 자기존중감이 남편의 성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남편의 자기존중감이 부인의 성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둘째, 남편과 부인의 자기존중감 수준과 성 만족도를 함께 비교한 분석에서는 남편과 부인의 자기존중감이 모두 높은 집단이 성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나, 남편의 성만족도와 부인의 성만족도를 구분할 경우 남편과 부인의 자기존중감의 차이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편 성만족도의 경우에는 남편과 부인의 자기존중감 수준이 모두 높은 집단만이 다른 집단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남편 성만족도가 높았으며, 부인 성만족도의 경우에는 부인의 자기존중감 수준이 높은 두 집단(남저여고, 남고여고)에서 부인의 성만족도가 높았다.

이는 남편의 경우에는 자신의 자기존중감 수준이 높고 부인의 자기존중감 수준도 높아야만 성만족도가 높아지는데 반해, 부인의 경우에는 남편의 자기존중감 수준과는 별도로 부인 자신의 자기존중감 수준이 높으면 성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부부의 바람직한 성만족도를 위해서는 부인의 높은 자기존중감 수준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박영화, 고재홍(2005)의 연구에서 남편의 자기존중감이 부인의 애정과 개입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부인의 자기존중감이 남편의 애정과 개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에 비교해 유추가 가능하다. 즉 성만족도에 있어서 남편보다는 부인의 자기존

중감이 보다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지금까지 중요성이 간과되었던 부부간의 성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연구를 시도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서 부부의 개인변인 중 하나인 자기존중감에 있어서는 부부 모두의 자기존중감이 높은 집단이 성 만족도가 가장 높지만 그 중에서도 부인의 자기존중감이 부부의 성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부부의 성 만족도에 미치는 남편, 부인의 관계와 영향에 대한 시사점을 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둘째, 남편, 부인 등 개별적인 연구가 아닌 부부를 한 단위로 묶어 조사함으로써 부부간의 상호작용과 역동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겠다. 부부는 홀로 독립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한 가정 안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만족도와 행복을 느낀다. 따라서 부부에 관한 연구는 한쪽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보다는 부부를 한 단위로 묶어 조사하는 것이 부부문제를 연구함에 있어 훨씬 심도 깊은 연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을 연구자들이 잘 알고는 있지만 부부를 한 단위로 묶어 연구한다는 것에 여러 가지 면에서 제약과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실제의 연구에 있어서는 이행되지 못했었다.

실제로 부부 연구에 있어서 부부를 한 단위로 하여 나온 선행연구들은 극히 제한적이다. 이런 면에서 본 연구가 부부를 한 단위로 묶어 부부의 성 만족도를 살펴보았다는 것은 매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부부가 한 몸되어 함께 살아가는 가정에서 부부가 느끼는 행복과 질적 만족도는 홀로 만들어내는 것이

기보다는 부부간에 서로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특히나 부부간의 성 만족도에 있어서는 더욱 그럴 것이다. 이런 면에서 부부의 성 만족도는 더더욱 부부를 한 단위로 묶어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경기, 서울, 강원일부지방에 한정되었지만 344쌍(688명)이라는 비교적 유의미한 통계를 측정할 수 있는 숫자의 부부를 대상으로 조사 연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부부를 한 단위로 한 연구는 꼭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실제 부부를 함께 조사하는 연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제약이 따르고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많은 사례수를 모아 의미 있는 통계를 측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따르는데 나름대로 300쌍이 넘는 부부를 사례수로 모았다는 의의가 있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에 응한 표본들의 정직성 문제를 들 수 있다. 아직까지도 성 만족도라는 질문이 편안하지 않고 알리고 싶지 않은 자신들만의 속생황을 드러낸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성 생활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는 것이 자신들의 사생활 침해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윤가현, 1998) 응답에 있어 부정직한 응답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부부간에 실제 느끼는 성 만족도보다 좋은 쪽으로 응답하였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또한 부부에게 따로 배부하고 회수한 것이 아니고 부부 중 한 쪽에게 설문지를 부탁하고 받은 것이기에 상대 배우자가 자신의 설문지를 볼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응답하였기에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자기존중감 설문지가 일부 부부들에게는 거부감과 부담감을 주었던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회수된 설문지에서 일부 몇몇 문

항을 제외함으로 유효설문에서 제외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실제 면담에 의한 측정이 아닌 자기보고식 설문이 갖는 한계를 본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부부를 한 쌍으로 묶어서 한 연구임에도 부부가 각자 지각한 성만족도에 대한 조사 연구만 진행했을 뿐 부부가 서로 교차하여 체크해보는 부분에는 진행하지 못했다. 부부가 서로 교차적으로 상대방에 대해 체크해본다면 자신의 지각에만 의존한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상대 배우자의 시각과 관점까지를 포함한 포괄적이고 보다 정확하며 풍성한 부부관계 연구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 부분까지 연구를 진행하지 못한 것이 아쉽게 생각되며 이와 같은 점들은 이후의 연구에서 보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권정혜, 채규만 (1998).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의 표준화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논문집.
- 권정혜, 노은여 (1997). 결혼생활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이 기혼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II: 자아존중감의 변동성과 남녀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16(2).
- 고정애 (2004). 기혼여성의 성 만족 및 일반적 의사소통과 성 관련 의사소통이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동석 (1988). 정관수술 수용자군과 비수용자군의 성기능 및 성만족도 비교.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요완 (2000). 부부 의사소통 유형과 성 지식 수준의 성 만족도와와의 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용욱 (1991). 자궁경부암 환자의 방사선 치료 후 성생활 변화.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윤미 (1996). 임부의 성생활에 대한 조사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임영 (2002). 남편과 아내의 가치관이 신혼기 부부의 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진영 (2005). 기혼여성의 성행동 및 성 만족도와 결혼 만족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효신 (1999). 중도장애인의 결혼만족도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효현 (1996). 성생활 만족도가 부부 적응에 미치는 영향 - 도시의 기혼남녀를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혜숙 (1993). 부부적응과 성적 적응에 따른 부부관계 유형 연구: 도시 중산층 기혼남녀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성호 (2001). 부부의 자아존중감, 내적통제성, 및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와와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영화, 고재홍 (2005). 부부의 자존감, 의사소통 방식, 및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1), 65-83
- 방영희 (2001). 임신부부의 성태도와 성만족도.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서선영 (2001). 결혼초기 부부관계에서 남편과 아내가 지각하는 사랑과 성.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송인섭 (1989). 인간심리와 자아개념. 양서원.
- 송인섭 (1998). 인간의 자아개념 탐구. 학지사.
- 송시내 (1999). 결혼생활 만족과 부부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양혜주 (1997). 혈액투석 환자와 신이식 환자의 삶의 질과 성생활 만족도.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양희란 (1993). 임신부인의 성생활 만족 요인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가현 (1998). 성 문화와 심리. 서울: 학지사.
- 이근후 외 (1999). 가족해체와 부부간 성윤리.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학술대회.
- 이영실 (1989). 도시 부인의 부부갈등 제 요인과 성생활 불만족의 정도.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윤수 (1998). 한국여성의 성의식 및 성실태. 한국성의학연구소.
- 이은주 (1993). 기혼남녀의 자아존중감과 활력적 결혼생활과의 관계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홍식 외 (1989). 완전한 부부: 전문가가 쓴 알기 쉽고 완벽한 성의학 백과. 서울: 오늘.
- 장순복 (1989). 자궁절제술 부인의 성생활 만족에 관한 요인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조성욱 (1987). 결혼만족도와 자아개념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5(1), 177-200.
- 홍강의 (2000). 인간의 성 - 그 본질과 기능. 대한의사협회, 43(2), 103-106.
- 홍성묵 (1999). 아름다운 사랑과 성. 서울: 학지사.
- 홍숙선 (2001). 기혼여성의 결혼만족: 관계 및 자율지향성과 성만족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Adams, B. N. (1980). *The family*(3rd ed) Chicago: Rand McNally Colledge Publishing Company
- Beach, S. R. Jouriles, E., & O'Leary, K. D. (1990). Extramarital sex: Impact on depression and commitment in couples seeking marital therapy. *Journal of Sex and Marital Therapy*, 11, 99-108.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Freeman.
- Cox, F. D. (1990). *Human intimacy, marriage, the family and its meaning*. 5th ed., St. Paul, N.Y. San Francisco; West Pub. Comp.
- Culp, L. N., & Beach, S. R. H.(Nov., 1993). *Marital discord dysphoria and thoughts of divorce: Examining the moderating role of self-esteem*. Paper presented to the 27th Annual Convention of the Association for Advancement of Behavior Therapy, Atlanta, Ga.
- Donnelly, D. (1993). Sexually inactive marriages. *Journal of Sex Research*, 30, 171-179.
- Ellis, A. (1969). The use of sex in human life. *The Journal of Sex research*, 5(1); 41-49.
- Marokoff, P., & Gilliland, R. (1993). Stress, sexual funtioning, and marital satisfavtion. *Journal of Sex Research*, 30, 43-53.
- Maslow, A. (1954). *Motiva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Harper and Bros.
- Means, M. C. (2000). *An intergrative approach to what really want Sexual satisfaction*. University of Detroit Mercy.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r-image*. Princeton, N. J.: Princeton

- University Press.
- Stack, S., & Gundlach, J. (1992). Divorce and sex.
American Sexual Behavior, 21, 359-367.
- Satir, V.. 사람 만들기 [*Peoplemaking*]. (성문선 역).
서울: 홍익제

- 1 차원고접수 : 2008. 5. 7.
심사통과접수 : 2008. 6. 3.
최종원고접수 : 2008. 6. 9.

The Relations between Married Couples' Self-Esteem and Sexual Satisfaction

Yeonggi Kim **Seongyul Han** **Min Han**
Dankook University Korea University

As the family structure changed, married couples' sexual satisfaction became one of the most important variable that predicts the satisfaction of married life in Korea. Because former researches had conducted on the husbands or wives separately, the interactions of married couples could not be considered sufficiently. So, the purpose of present research is to find out the relation of self-esteem and sexual satisfaction in the perspective of married couples' interactions. 750 married couples were participated in the survey in Seoul, Gyeonggi, and Gangwon provinces, and data of 344 married couples were analysed.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is as follows. The correlation between married couples' self-esteem and sexual satisfaction is positive. Especially, wife's self-esteem was more related with couple's sexual satisfaction than husbands'.

Key words : self-esteem, sexual satisfaction, interaction, married couple